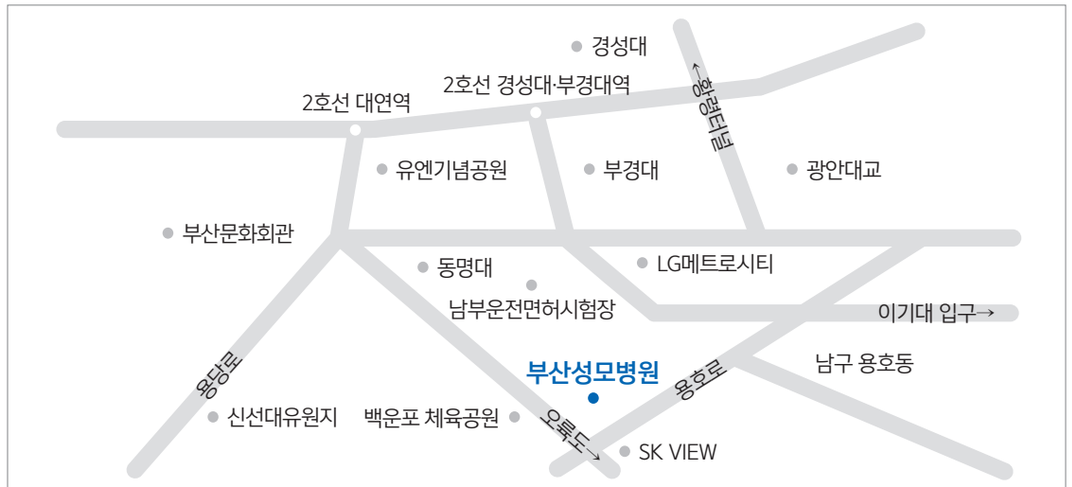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진료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완화의학과	혈액종양내과	완화의학과	혈액종양내과	완화의학과	-
오후	혈액종양내과	완화의학과	혈액종양내과	완화의학과	혈액종양내과	-

※ 가정형 호스피스 진료는 완화의학과로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가정형 호스피스 상담 T 051)933-7969
- 완화의료센터 입원 상담 T 051)933-7133
- 완화의료센터 입원 진료예약 T 051)933-7777

찾아오시는 길



- 서면방면 20, 24번
- 부산역방면 22, 27번
- 동래방면 131번
- 해운대방면 39번
- 마을버스 남구2, 2-1, 8번
- 부산성모병원 정류소 하차(셔틀버스 운행)

부산가톨릭의료원 BUSAN ST. MARY'S HOSPITAL 부산성모병원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T 051)933-7133 F 051)932-8636

2024년
VOL.25
www.bsm.or.kr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치료

동행

부산가톨릭의료원 BUSAN ST. MARY'S HOSPITAL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이별의 아픔

이 해 인

병들어 베어버린
나무 한 그루
다시 보고 싶어
밤새 몸살하며 생각했지

지상의 나무 한 그루와의 작별도
이리 서러운데
사랑하던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슬픔 감당하기
얼마나 힘든 건지!

너무 쉽게
잊으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빨리 잊을수록 좋다고
세월이 약이라고
옆에서 자꾸 독촉하면
안 될 것 같아
사랑하는 이를
저세상으로 보내놓고도
곧 그가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
내내 아파하는 이들에겐
마음껏 그리워하라고 말하는 게
더 아름다운 위로가 아닐까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해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무엇인가?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 및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습니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CONTENTS

권두 이야기
이별의 아픔 ..... 이해인 02

읽을거리
"살고 죽는 문제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 쇼펜하우어 『인생수업』 - 04

우리들의 이야기
희망학교 ..... 안경숙
호스피스,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 ..... 최재진
병동에서의 원예요법 ..... 이경미
위로와 격려의 지지를 ..... 호스피스 가족
05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이모저모 10

후원회 가입안내 14

이용안내 15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진료시간표 16

동행 2024년 · VOL.**25호**

발행일 2024년 11월 **발행인** 구수권 **편집인** 윤명숙
발행처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T** 051-933-7133 **F** 051-932-8636
디자인·인쇄 (주)브레인스톰 | **T** 051-851-1531 www.stormad.co.kr

“살고 죽는 문제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 쇼펜하우어『인생수업』-

인문 고전을 읽어야 마음이 풍부해진다는 말을 듣고, 건조한 생활에 마음을 촉촉하게 해줄 고전을 찾아보았다. ‘거장들은 삶의 의미를 어떤 관점으로 볼까?’라는 궁금증으로 쇼펜하우어 책을 펼쳤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잘 사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쇼펜하우어의 책 내용이 가슴에 와닿는다. “애꿎은 곳에 열정을 쏟을 바에야 그 무엇보다도 귀한 지금에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 여러모로 현명한 길일 것이다”라는 말에서 리스펙이 절로 나온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는 이에게**

한 황제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삶을 꿈꿨다.
그래서 전설로만 전해오던 ‘늙지 않는 약초’를 찾고자 온 대륙을 들쑤신 것은 물론이며,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수은을 섭취하기도 했다. 소량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팽팽해지기에, 황제는 이를 불로장생약으로 믿고 매일 먹고 몸에 발랐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그의 젊음을 지켜주지도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지도 못했다. 황제는 많은 사람이 그렇듯, 채 백년도 되지 않는 삶을 살다 죽음을 맞았다. 멍청한 이야기 같은가? 젊음을 유지하고 죽음을 몰아내려는 시도는 몇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어져, 신묘한 힘이 담겨 있다는 엉터리 묘약을 사기꾼으로부터 사서 마시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

사람들은 살고 죽는 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원한다면 얼마든지 미룰 수 있고 언젠가는 그렇게 되고 말 거라고 믿지만, 죽음은 태어남과 함께 쌍을 이루어 이 세상을 찾아온 쌍둥이 같은 존재이다. 삶과 죽음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죽음이 삶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고 삶이 죽음을 비굴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다. 세상의 아주 작은 일부를 들여다보면, 곤충이 알을 낳고 그곳에 사체로 남아 봄에 태어날 자식들에게 먹이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혹자는 그 작고 짧은 순환을 아주 가련하게 여기지만, 그 흐름은 내일 먹을 음식과 입을 옷, 내일 할 일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인간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의 삶이라고 해서 곤충과 동물의 삶보다 더 특별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과 죽음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은 세상을 둘러보기만 해도 곧바로 알 수 있다. 숭고한 죽음을 맞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허탈하게 죽는 사람도 있다. 개미가 길을 지나는 사람의 발에 밟혀 죽듯, 거대한 자연의 흐름에 휩쓸려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사람은 매년 발생한다.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특별한 삶을 타고났다면 과연 누가 그런 죽음을 의도했단 말인가?

그저 죽을 뿐이다.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자연은 생명 하나하나의 삶과 죽음이 자신과 그다지 관련 없으며 이전에도 딱히 관심을 가진 적도 없다고 무심하게 말한다. 이제는 받아들일 시간이다.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죽음을 조금이라도 미루려고 발악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애꿎은 곳에 열정을 쏟을 바에야 그 무엇보다도 귀한 지금에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게 여러모로 현명한 길일 것이다. 땅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다시 땅으로, 그렇게 나뭇잎이 계절에 따라 순환하듯 우리도 살고 죽는 문제에 구애받지 말아야 한다.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출처 |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쇼펜하우어 인생수업 : 한번뿐인 삶 이렇게 살아라

희망학교

안경숙 마리엠마
영적돌봄 수녀

올여름 유난히도 무더웠던 폭염이 물러가고 제법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듯 사랑의 흔적 또한 돌고 돌아 쉼 없이 흘러가고 있다.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병동 환자들의 영적 돌봄가로서 이번 소임이 두 번째다. 그러고 보니 딱 10년 만에 다시 온 셈이다. ‘왜 또 다시 왔을까?’ 사실 소임 받기 전 딴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 총원장 수녀님의 전화를 받고 나도 모르게 감사하며 희망학교 입학이 시작되었다. 동시에 여러 생각과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느님의 뜻을 찾고, 채우고자 동분서주 중이다. ‘반복소임의 뜻이 무엇일까?, 잘해서~ 아니면, 너무 잘 못해서... 어쨌거나...’ 아쉬웠던 게 많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더 잘해 보라는 주님의 선물인 것 같아 기쁘게 달려왔다.
병동에서 환자나 보호자들이 가끔 조용히 나지막이 나에게 묻곤 한다. 아주 조심스레... “저~기... 수녀님 이곳에 오면 한... 얼마정도 있다 죽게 되나요?”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렸지요... 한 3일 생각하고 입원한 어떤 분은 혼란스러웠던 과거 삶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결심을 한 뒤 매일을 산다고 고백하시고 입원일 60일이 지나 타 병원으로 전원 가신 분도 계십니다...”라고 전하니 질문한 보호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눈물을 뚝뚝 흘린다. 이렇듯 마음 먹기에 많은 것이 좌우되는 현장에 나는 서 있다.

이곳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니라 암이라는 병을 통해 삶을 완성하는 곳이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아픔 고통을 배우기 위해 입학하는 희망학교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죽음도 행복한 축복임을 깨닫고 배우는 학교이다. 없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고 찾아 누리는 행복의 기쁨을 배우는 것이다.

기쁨도 슬픔도 배우고, 고통도 행복도 배우고 나누는 희망학교, 희망바다에서 삶의 완성을 위한 희망을 건져 올리도록 하자.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기쁨의 선물임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자유가 은총임을 깨달을 때 희망 벅찬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된다.
항암후유증으로 무력감과 위기감 깊은 우울감에 빠져 호스피스병동을 찾는 환우와 가족을 만나면서 나는 온 마음 다해 사랑으로 환대하고 희망학교에 입학한 것에 감사와 위안을 드린다.
이곳 희망학교는 희망을 찾고 배우고 건져 올리는 무한한 바다이다. 부지런히 희망을 건져 올리도록 하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도울 것이다.

호스피스, 또다른 시작의 출발점!

최재진
완화의료센터 간호사

아직은 어린 나이이기에 죽음을 느껴볼 일은 많지 않았다. 간접적인 죽음의 경험이라면, 어린 시절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마지막 장면... 그 정도가 내 기억 속 죽음일 뿐, 그 마저도 흐릿한 기억일 뿐이다.
간호사를 꿈 꾸어온 나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기 위한 소박한 꿈을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각기 다른 크기와 모양으로 삶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평범한 진리를 배워가고 있고, 말기 암이라는 병을 통한 인생의 마지막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마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 새로운 세계로 잘 건너가도록 도와주는 이곳 호스피스 병동에서 나는 일하고 있다.

호스피스병동에서 일을 시작할 무렵 모순적이게도 이곳에서는 일상인 환자의 죽음을 마주 하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웠다. 환자의 마지막을 볼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느껴졌고 과연 내가 이 일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그저 환자의 임종만을 바라보는 것이 내 일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지? 그렇다면 내가 꿈꿔왔던 생명을 살리는 간호사로서의 소명은 사라지고, '그저 누군가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나의 미숙함으로 인해 누군가의 마지막이 오히려 상처 받고 불만족스럽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임종한 환자들이 몇 번씩 꿈에 나타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또 다시 일터로 나온 적도 더러 있었다.
과연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이 특별한 곳에서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흔들리고 갈등하던 신규 간호사 시절 나에게 내면의 변화를 가져다 준 소중한 환자분이 기억난다.

주사바늘을 몇 번이고 실패해도 자신의 팔을 내주며 자기가 아직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남았다며 웃으며 넘기고, 자신이 수년간 인슐린을 맞으며 직접 쌓아온 경험으로 어떻게 바늘에 찔리면 덜 아픈지를 직접 알려주던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던 환자분,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을 직감한 후에는 본인의 장례식장을 알려주며 임종 후에 한 번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던 그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 이후로 호스피스병동에 대한 나의 생각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물론 아직도 누군가의 마지막을 마주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죽음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순간 '환자에게 소홀하게 대하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애써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죽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지만, 그 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출발점이라는 희망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미지의 길을 떠나는 그들 곁에서 그들을 기억해 주고 기억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동반자 호스피스 간호사로서의 소명에 보람을 느낀다.

병동에서의 원예요법

이경미 수산나
사별가족

처음으로 호스피스완화병동에서 참여하는 원예요법이라 내심 약간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꽃꽂이, 아니면 작은 화분에 꽃나무를 심는 것일까?'하는 생각을 잠시 해본다. 이어 강사 선생님의 소개와 함께 설문지 같은 종이를 받고보니, 1-10번까지의 미션 같은 내용이었다.

이 날 참여한 보호자는 10명, 1명씩 인사를 나누고 해당번호의 미션을 수행한 후 옆 공란에 상대 보호자의 이름을 다 적으면 완성!... 미션은 이런 내용들이었다.

* 상대와 팔짱 끼고 좌·우 3바퀴씩 돌기
* 엄지 손가락을 내밀어 상대방에게 큰소리로 당신이 최고야! 등

공란에 10명의 이름이 채워지면서 웃음소리도 커져갔다. 웃음은 보호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강사님은 심리공부를 하셨다고도 한다.

그리고 이어진 원예요법
'프리저브드'라는 꽃인데, 생화에 보존액을 사용해 장기간 물 없이도 시들지 않는 꽃을 준비해 주셨다.
이날 수업 준비물은 미니 모형 수레와 여러 종류의 프리저브드. 생화보다도 더 선명한 컬러로 건조된 상태라 앙증맞았다. 보호자들은 먼저 컬러 사인펜으로 수레를 장식한 후 각자 선택한 프리저브드로 꽃수레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꽃수레를 만드는 동안, 나는 잠시였지만,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 같다.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강사님은 수레에 이름을 지어보라고 했다. '동생과 함께'라는 이름으로 꽃수레에 탄 나를 앞에서 동생이 끌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설명까지 더했다.

올 2월초까지만 해도 힘은 들지만, 팔짱을 낀 상태에서 끌어주는 나의 힘을 빌어 동생은 어렵게 숨 고르며 조금씩 걸음을 떼어가며 함께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지금은 하지마비로 인해 동생의 몸 반쪽은 나와 호스피스병동의 많은 도우미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안타깝고 안타까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와 고마움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차곡 차곡 채워지고 있음에 감사와 사랑을 보태고 있다.

위로와 격려의 지지를

푸른 하늘상

류성희님은 호스피스완화병동에서 맑은 마음과 정신으로 매순간 씩씩하고 긍정적으로 투병생활을 봉헌하고 계심에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이에 완화병동팀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푸른 하늘을 드립니다.

푸른 소나무상

박정석. 요셉님은 씩씩하게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소중한 하루하루를 기쁘게 봉헌하며 요셉으로 세례 받으시고 기쁨에 찬 보람으로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에 완화병동팀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푸른 소나무를 드립니다.

민들레 홀씨상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젊은 아들의 투병을 지켜보며, 한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투신하는 어머니 사랑의 돌봄은 세상 곳곳으로 퍼져가는 민들레 홀씨 되어 이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이에 완화병동팀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민들레 홀씨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딸 흰구름상

어머니의 긴 투병 기간 내내 투정 한번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결같이 헌신하며 곁에서 함께 고통을 동반하는 딸의 선하고 고운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에 완화병동팀원들의 감사의 마음 담아 푸른 하늘의 흰구름을 드립니다.

감동의 물결 동백꽃나무상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헌신했던 환자의 고마움에 함께하는 사랑으로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배우자의 애잔한 땅콩같은 사랑이 전해져옵니다. 이에 완화병동팀원들의 감사함을 담아 감동의 물결 동백꽃나무 한 그루를 드립니다.

천리향나무상

투병하는 남편 곁에서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일치의 사랑으로 끝없이 베푸는 한결같은 부부애가 멀리 천리까지 향이 퍼진다는 천리향나무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에 완화병동팀원들의 감사함을 담아 천리향나무 한 그루를 드립니다.

두둥실 뭉게구름상

투병하는 남편 곁에서 조용히 열정적으로 정성 다해 보살피는 극진한 사랑이 푸른 하늘에 뭉게구름 흐르듯 병동 내 흐르고 있답니다. 끝없이 나누고 베푸는 배우자의 귀한 마음이 크게 다가옵니다. 이에 완화병동팀원들의 감사함을 담아 두둥실 뭉게구름을 드립니다.

배롱나무상

투병하는 남편 곁에서 함께 하기 위해 일상을 내려놓고 올인하는 아내의 깊고 찐한 땅콩같은 사랑이 여름 내내 백일동안 피고 지면서 붉은 꽃을 피워주는 배롱나무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에 완화병동팀원들의 마음을 담아 배롱나무를 드립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들국화상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 속담은 늘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곤 하지요. 투병하는 어머니 곁을 애잔한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OOO님의 따뜻하고 소중한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에 완화병동팀원들의 마음을 담아 청명한 가을하늘 풍성한 들국화를 드립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이모저모

복날 맞이 도시락 나눔 및 특별식 제공

한가위 축제(송편 빚기, 돌림판 돌리기, 선물 나눔)

영적 돌봄

생신 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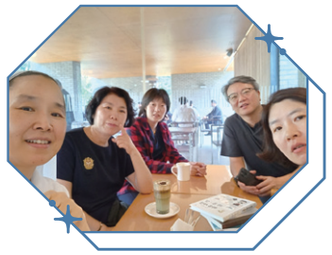
가족교육

사별가족모임

10월 완화의료주간 호스피스의 날 행사

프로그램 현장

2024년 하반기 가정형 호스피스



♥ 복날 이벤트

초복이 있는 주간에 방문을 가기 전, 환자와 보호자가 따뜻한 복국을 드실 수 있도록 미리 주문하고 찾아서 방문

♥ 소진 관리

가정형 호스피스의 담당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담소를 나누며 업무에 대한 소진감 해소

♥ 사별 가족 방문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하다가 임종하신 환자의 가정을 찾아가 가족들의 사별의 아픔을 위로

♥ 생일 및 금혼식 이벤트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 기간 동안 금혼식을 맞이한 부부와 생신을 맞이한 환자에게 축하 이벤트를 함

♥ 사별가족 만남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하다가 임종하신 가족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의 아픔에 대해 나눔

♥ 어버이날 선물과 추석 선물

어버이날을 맞아 예쁜 카네이션 한 송이와 도라지정과 호두정과를 그리고 추석에는 과일을 선물로 드림

♥ 아로마 발마사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가정으로 찾아가 아로마 발마사지를 하며 부종 완화 및 심리적 긴장을 감소시키는 시간을 가짐

후원회 가입안내

호스피스 후원회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사무실의 Fax, 전화,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후원회원에게는 호스피스 소식지를 발송해 드리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 후원기금 참여 신청서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연 락 처	

※ 부산가톨릭의료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후원하시는 모든 기부자분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기부약정의 효력으로 영구 보관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동의 서명 : _____

금액 : 일금 _____ 원(₩ _____)

□ 일시기부 :

□ 정기기부 : 매월 _____ 원 _____ 회(년)

※ 납부안내 : □ 무통장 입금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자동이체(CMS)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금 주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동의서명 :

※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 후원기금은 소정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에서 펼치는 말기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가톨릭 의료기관의 이념 실천 사업을 지지하며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신청서 보내주실 곳 48575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후원회 관련 문의사항 Tel 051)933-7137 Fax 051)932-8636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이용안내

본원 입원 환자

담당의 완화의료팀 의뢰 → 1 → 완화의료팀 담당의사 진료 → 2 → 완화의료팀 병동면담 및 안내 → 3 → 입원 → 4

타 기관 환자

타 의료기관 의료 정보 → 1 → 완화의료팀 담당의사 진료 → 2 → 완화의료팀 병동면담 및 안내 → 3 → 입원 → 4

※ 구비서류
①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1개월 이내)
② 최근 검사자료(CD 및 영상 판독지, 조직검사 결과지)
③ 현재 복용 중인 약 처방전
④ 의무기록사본 등

진료시간 및 진료과 안내

- 예약 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진료예약 :** 051)933-7777
- **평일 :** 오전 10시~오후 5시
- **토요일 :** 오전 10시~오후 12시(일요일, 공휴일은 휴진)

진료상담 및 문의

- **입원형 :** 051)933-7133
- **가정형 :** 051)933-7969
- **F A X :** 051)932-8636